



— 癌 정 복 전 망 밝 다 —

8 大 의 癌

癌은 인체의 어느 부위에도 발생이 가능하나 사람에 따라 발암위험부위는 다르다.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따가운 햇빛을 많이 받는 등 후천적인 요인도있지만 백인·황색인 또는 흑인등 인종에 따라 다발하는 암이 있는등 선천적인 원인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빈발하는 10대암의 발생과정, 사망률, 증세방법치료 등을 미국립암연구소(NCI)가 밝혀낸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폐암 - 발병률 1위로 전체암중 15%를 차지한다.

85년 한해동안 美國에서 14만 4천명의 폐암환자가 새로 발견됐다.

그러나 白人남자의 폐암발병률은 지난 82~83년 기간동안에 약5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다고 NCI는 85년말 발표했다.

하지만 흑인남자와 전인종의 여성들에게는 폐암발병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사망률 23%로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보다 사망률이 높다. 지나친 흡연·석면·동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비소·방사능가스·비타민A 결핍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침을 계속하고 피가 섞인 침이 나온다든가 가슴에 통증이 있다.

초기단계에는 검진이 어려우며, 암세포가 퍼진 후에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적요법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발병확인 후 5년이상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결장및 직장암 - 일반적인 피부암을 제외하면 폐암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다.

가족중에 병력이 있거나 결장이나 대장에 폴립이 있을때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창자에서 분비되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시킬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규명은 되지않고 있다.

수술과 함께 방사선요법을 병행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아직 약물요법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은 대장암의 경우 87%, 직장암의 경우 78%이고 암세포가 퍼졌다하더라도 생존율은 각각 47%, 38%이다.

유방암 - 50세 이상으로 유방암 경력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한다. 자녀가 없거나 30세가 넘어서 자녀를 가진 여자도 위험대상.

월경을 빨리 시작했고 폐경도 빠른사람도 조심해야만 한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단에서 많이 발생한다.

유방에 멍울이 생기거나 비대해지고 붓는등 변화가 잦으면 일단 의심.

20세 이상의 여성은 한달에 한번씩 자가진단을 하는것이 필수적이며, 40대, 50대



에 가서는 최소한 1년에 한번씩 흉각 X선
검사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한때 절제수술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醫
術의 발달로 절제수술의 부위도 줄어들었
으며, 방사선 요법, 약물요법도 병행한다.

약75%가 5년이상 생존하며 국소유방암
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96%에 이르고 있다.

피부암- 대부분 가벼운 암이나 악성흑
색종은 치명적이다.

상오10시부터 하오 3시까지 태양의 자
외선에 많이 노출되는것은 좋지않으며, 방
사능물질 콜타르피치, 비소화합물을 다루
는 사람은 위험하다. 피부나 반점의 색깔
이 변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세
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악성흑색종의 경우에는 원인부위와 주위
를 제거 하는것이 일차적이고 방사선치료
은열요법 냉열요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비타민A가 피부조직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전이 피부암의 면역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지의 연구가 진행중에 있
다.

악성 흑색종은 암세포의 번식률이 높으
나 백인의 경우 생존율이 82%나 된다.

전립선암- 65세 이상의 남자에서 많이
발견된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소변이
중단되기도 하고 밤중에 소변을 자주본다.
의심의 생기면 X레이검사, 오줌성분 분
석, 혈액 검사등이 필요하다.

전립선을 감싸고 있는 조직에까지 암세
포가 퍼졌으면 수술과 방사능치료를 병행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외술의 발달로 5년이상 생존율은 백인
68%, 흑인 58%까지 높아졌다.

자궁암- 경제적 여유가 없고 난잡한 성
생활을 했을 경우와 어린나이에 첫 경험을
했을때는 조심해야 한다.

50세 이상으로 불임경험이 있거나 비만
증세, 늦은 폐경도 발병요인이 된다.

수술이나 방사선요법 혹은 병행치료가일
반적이다.

진류를 이용한 고열로 세포조직을 파괴
하는 치료법도 있고 국소수술도 있다.

암조직이 퍼지기전에 발견하면 1백%치
료가 가능하고 발견시기가 늦다 하더라도
골반암 자궁내막암 다같이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방광암- 남녀 발생비는 3대1. 담배·방
향족아민·가죽·고무가 암을 일으키는 것으
로 추측되고 있다.

피쉬인 오줌을 자주 누고 방광근육발작
을 일으킬 경우도 있다.

반 이상이 3년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85%선이다.

구강암- 담배와 음주가 주된 원인이나
맞지않는 의치등 치아와도 관계가 깊다.

입안에 상처가 잦고 좀처럼 아물지않는
경우가 많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일단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구강검사를 받는것이 바람직하
다.

수술과 방사능치료요법이 있고 화학약품
치료요법은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다. 인두
암의 생존율은 22%. 입술암은 84%선.